

정신분열증 환자의 개인적 구성개념* 특유성

손 정 락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형태 사고장애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이완 구성개념화를 평가하고, 특히 대인경험 영역에서의 개인적 구성개념 구조를 알아 보았다. 요소(인물사진, 실제인물 및 사물)와 구성개념(심리적 구성개념, 신체적 구성개념 및 물리적 구성개념)의 조합으로 만든 다섯 종류의 Rep Grid로써 대인지각 영역과 사물지각 영역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할 소구획 요인설계를 하였는데, 피험자간 요인설계(각 피험자 집단)와 피험자내 요인설계(요소들과 구성개념들)를 하였다. 결과는 형태사고장애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물리적 구성개념으로 사물을 판단할 때 보다, 특히 심리적 구성개념과 신체적 구성개념으로 사물을 판단할 때 구성개념에 요소를 일관되게 배정하지 못하는 이완 구성개념화와 구성개념-구성개념 이완 구성개념화를 나타내었다. 요소-구성개념의 이완 구성개념화는 인물사진 및 실제인물 요소에서 특히 이완 구성개념화를 나타내었으며, 사물요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결과들로도 나타났다. 이들 비일관성은 대인경험 영역에서의 갈등과 관련이 있으며 이완 구성개념화의 발생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사고에 대한 개인적 구성개념 이론의 핵심은 개인의 전체 구성개념 체계는 많은 하위체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하위체계 내에서의 구성개념들은 비교적 강한 관계의 특징이 있다고 보고 있다. Bannister와 Salmon(1966)은 형태사고장애 정신

분열증 환자들(formal thought-disordered schizophrenics : 이하에서는 TD라고 부름)의 사고는 일반적으로 모든 구성개념 하위체계들에 장애를 보이는지 즉, TD환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주제이든 간에 똑같이 혼란되어 있는지 혹은 어떤 영역에 관한 생각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더 특유하게 장애를 보이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정신분열증 형태 사고장애는 모든 하위체계들

*이 논문은 1992년도 교육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지방대학 육성)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에 똑같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며, 사물 구성개념화에 적용되는 하위체계들에서 보다 인물 구성개념화에 적용되는 하위체계들에서 더 뚜렷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신분열증 환자가 발달과정을 통해서 겪게 되는 이중구속 커뮤니케이션이 대인 사상들을 구성개념화 하는데서 반복해서 비타당화 되는 것이며, 물리적 대상을 구성개념화하는 데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로 이러한 의문에 접근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TD 환자들의 구조적 불안정성은 심리적 하위체계에 초점이 모아져야 하며, 물리적 하위체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임상적으로, 우리는 흔히 TD 환자들이 문, 칼, 구두끈 등을 자신있게 다루지만,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데는 전적으로 실패하고 있음을 관찰하게 된다”(p.216). Bannister 등은 특히 Bateson, Jackson, Haley 및 Weakland(1956), Laing과 Esterson(1964), 그리고 Lidz(1964)의 연구를 주목하였는데, 이 연구들도 역시 대인사상이 정신분열증 환자에게는 다른 영역에서의 경험보다도 더 혼란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특유성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Bannister와 Salmon(1966)은 두개의 Rep Grid를 실시하였는데, 인물 요소들과 심리적 구성개념으로 된 인물 Grid(People Grid)를 12명의 TD 환자와 11명의 정상 성인에게 실시하였다. “TD 환자들이 사물을 구성개념화하는 데서 안정성의 정도는 정상인들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나, 인물사진들을 구성개념화 하는 데는 분명히 유의하게 덜 안정되어 있을 것이다”(p.217)라고 예언하였다. 이들은 정상 피험자들이 인물 구성개념화와 사물 구성개념화 모두에서 TD 피험자들보다 유의하게 더 안정성을 보여 주었음을 발견하였다. 사물 구성개념화에서도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이들의 주 가설을 확증시켜 주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또한 두 집단 모두가 인물 Grid에서 보다 사물 Grid에서 더 안정성을 보았음을 발견하였다.

Bannister와 Salmon은 사물 요소와 인물 요소

간에 상대적인 안정성 상실의 정도에서 그들의 자료를 재검토하였다. TD 환자들이 정상인들보다 사물 요소에서 인물 요소로 변경하였을 때, 구성개념화에서 더 안정성을 상실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일탈의 면에서 TD 환자와 정상인을 비교하였다. 사회적 일탈은 정상 집단의 구성개념 관계의 평균패턴인 “정상” 패턴에 각 개인이 일치하는 구성개념 관계 패턴의 정도로서 조작적으로 정의되었다. 결과는 TD 환자는 사물과 인물 구성개념화 모두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사회적 일탈 수준을 보였으며, 두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는 인물 구성개념화에서 비교적 더 높은 사회적 일탈을 보였다. Bannister와 Salmon은 이 연구의 결과를 “TD 환자들이 사물과 인물 사이를 구성개념화할 때 최대의 손상 영역은 인물 구성개념화라는 견해와 분명히 일치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즉, TD 환자들은 사물을 해석할 때는 정상인보다 약간만 저조하였다. 이는, 정신분열증 형태 사고장애는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대인 구성개념화와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Bannister와 Salmon의 연구에서, 각 Grid를 1회, 2회 실시하고 난 8주 후의 실시에서 요소들과 구성개념들을 모두 새롭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상이한 종류의 구성개념(심리적 대 물리적)을 사용한 영향과 구성개념화되는 상이한 요소들(인물 대 사물)에 기인하는 어떤 요인이 결과에 설명되었을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의 안정성(일관성)의 정도는 동형검사 신뢰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안정성 정도(구성개념 관계 일관성 측정치)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구성개념 관계 강도를 측정하지 않았다.

Salmon, Bramley 및 Presley(1967)는 Word-in-Context를 사용하여 “특유성 가설”을 증명하였다. TD 환자들과 비형태 사고장애 정신분열증 환자들(non-formal thought-disordered schizophrenics: 이하에서 NTD라고 부름)은 문맥에서 “비심리적” 단어들을 추론하는 정확성 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비심리적 단어들은 시

간과 공간의 물리적 세계에 관련되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 감정, 적용세계에 관련되는 단어들인 심리적 단어들의 의미를 추론하는데 있어서는 NTD 환자들이 TD 환자들 보다 유의하게 더 정확하였다. Salmon 등은 “TD 환자들이 비심리적 개념들과 비교하여 심리적 개념들을 획득하는데 비교적 손상되어 있는 것같이 보인다는 사실은 심리적 과정과 속성에 관계되는 개념적 붕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p.258)고 결론지었다. Livesay(1981)는 “대인 판단 척도”를 사용하여 TD 환자들의 비일관적인 대인판단을 증명하였는데, 이는 Bannister(1963)의 구성개념 관계 비일관성 지수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Salmon 등(1967)과 Livesay(1981)는 비-Grid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McPherson과 Buckley(1970)는 동일 요소들을 구성개념화하는데 상이한 종류의 구성개념이 정신분열증 형태 사고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12명의 TD 환자들과 12명의 정상 성인들에게 두 가지 형태의 Grid Test를 이틀간 잇달아서 실시하였다. 즉, TD 환자들은 물리적 구성개념으로 사진을 구성개념화할 때 보다도 심리적 구성개념으로 사진을 구성개념화할 때 더 큰 장애를 보이는지를 검증하였다. TD 환자들은 심리적 구성개념에 근거한 Grid Test에서만 구성개념 관계 강도와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 모두에서 정상인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McPherson과 Buckley의 결과는 TD 환자들은 인물들을 구성개념화할 때에, 심리적 준거에 따라서 구성개념화할 때 보다도 사물(물리적) 준거에 따라서 구성개념화할 때 장애가 덜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Bannister와 Salmon(1966)의 결과를 명료하게 해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또한 두 연구를 고려해 볼 때, 정신분열증 형태 사고장애가 다양한 정도로 상이한 구성개념 하위체계들에 영향을 미치며, 사고내용이 정신분열증 형태 사고장애의 심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결론지었다. 이 결론은 Kelly(1955)의 가정과 일치하고 있

는데, Kelly는 한 사람의 전체 구성개념 체계는 각 하위체계 내의 구성개념들간에는 비교적 강한 관계의 특징이 있는 반면에, 상이한 하위체계들로부터 나온 구성개념들과는 비교적 약한 관계의 특징이 있는 여러 개의 하위체계들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들의 결론은 Bannister(1965)의 발견과도 일치하고 있다.

McPherson, Armstrong 및 Heather(1975)는 특유성 가설에 관한 이전 실험들은 모호한 결과를 산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Bannister와 Salmon이 심리적 Grid Test와 물리적 Grid Test에서 내용 이외의 다른 요인이 결과에 설명되었을 가능성을 허용하는 상이한 유형의 요소들을 사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인물사진은 자극으로서 더욱 복잡할지도 모르며, 혹은 여러가지 평범한 사물들의 이름보다 더 산만하게 하는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McPherson과 Buckley는 두 가지 형의 Grid Test에서 동일한 세트의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이 문제점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McPherson 등(1975)은 동일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두 가지 형의 Grid Test를 고안하였는데, 하나는 심리적 구성개념들에 근거하는 것이고 하나는 비심리적 구성개념들에 근거하는 것이었다. 이 두 검사 형이 곤란도로 짝지워졌다. 여기에 더해, 두개의 다른 Grid Test를 고안하였는데 하나는 “어려운”형이었고, 다른 하나는 “쉬운”형이었다. 이 네개의 Grid Test를 10명의 TD 환자와 10명의 NTD 환자, 10명의 정상성인으로된 세 집단에 실시하였다. TD 집단은 심리적 검사 형에서 다른 두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낮은 구성개념 관계 강도 점수를 보였다. 비심리적 검사 형에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D 집단은 또한 두개 형(심리적/비심리적)의 검사 모두에서 다른 집단들보다 유의하게 더 낮은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 점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검사들의 “곤란도” 수준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성개념 관계 강도 점수나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 점수 면에서 유의한 효과를 산출하지 않았

음이 발견되었다. McPherson 등(1975)은 “사고 장애는 전반적인 모든 사고영역에 걸쳐서 일반화된 붕괴를 가져오지는 않으나, 심리적 구성개념 영역에서는 최대라는 견해에 대해서, 현재의 결과는 강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322)고 결론지었다.

Heather(1976)는 특히 “TD 환자들은 구성개념화되어지는 요소들로서 낯선 인물 사진이 사용되었건, 아는 인물 사진이 사용되었건 간에 관계없이, 심리적 구성개념들을 사용할 때보다 물리적 구성개념들을 사용할 때 NTD 환자들에 비해서 장애가 덜 할 것이다”(p.132)라고 가설을 세웠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Heather는 요소들로서 낯선 인물 사진과 이 사진과 비슷한 알고 있는 인물 사진을 사용하고, 심리적 구성개념들과 물리적 구성개념들의 모든 가능한 조합에 의한 네가지의 Grid Test를 고안하였다. 네가지 Grid Test를 24명의 피험자에게 실시하였다. 피험자는 TD로 판단된 8명의 정신분열증 환자, NTD로 판단된 8명의 정신분열증 환자 그리고 정신과적 병력이 없는 8명의 정상성인의 세 집단이었다. 그런데 각 Grid는 한번만 실시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은 측정되지 않았다.

TD 환자들은 정상인들이나 NTD 환자들보다 네개 Grid Test 모두의 평균 점수에서 유의하게 더 낮은 구성개념 관계 강도 점수를 보였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전반적인 구성개념 관계 강도 점수는 물리적 구성개념들에서보다 심리적 구성개념들에서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세 집단간의 중다비교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사진들을 요소로 한 두 Grid Test에서 TD 환자와 다른 집단들 간의 구성개념 관계 강도점수에 관한 관찰된 차이는 심리적 구성개념들에서는 유의하였으나, 물리적 구성개념들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비슷하게, 피험자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요소로 사용하였을 때, TD 환자와 NTD 환자들 간의 차이는 심리적 구성개념들에서는 유의하였으나, 물리적 구성개념들에서는 유의

하지 않았다.

Heather는 “TD 환자들은 NTD 환자들보다 요소에 관계없이 심리적 구성개념들을 사용한 Grid들에서는 유의하게 더 낮은 점수를 얻을 것이지만, 물리적 구성개념들을 사용한 Grid들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p.135)라고 한 범위에서는 이들 결과가 자신의 일반적인 가설을 지지해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구성개념들과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온다면 상당히 더 큰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집단간 차이검증 결과는 TD 피험자들이 NTD 피험자들보다 심리적 구성개념들이 포함된 Grid Test에서는 유의하게 더 낮은 구성개념 관계 강도 점수를 얻었으며, 물리적 구성개념들이 포함된 Grid Test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McPherson과 Buckley의 결과와 완전히 일치하였다. Heather의 실험은 피험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요소로 사용함으로써 Grid Test에 대한 일반화를 확장시켜 준 것이다. Heather는 또한 Bannister와 Salmon의 특유성 가설을 강한 형과 약한 형으로 구별하였다. 강한 형이란 정신분열증 형태 사고장애는 심리적 하위체계들에만 특유하며, 그러므로 TD 환자들은 물리적 구성개념들을 사용할 때는 “인지적 결함”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Heather는 강한 형은 Bannister의 연속적 비타당화와 더 밀접하게 관계된다고 주장하였다. 약한 형의 특유성 가설은 단지 TD 환자들은 물리적 구성개념들에 의하여 정보처리를 하는데 정상인들보다 더 혼란을 보일 것이며, 이 두 전집 간의 차이는 심리적 구성개념이 사용될 때 한층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Heather는 물리적 구성개념 Grid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강한 형”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McPherson, Armstrong 및 Heather(1978)는 또한 이전 연구(McPherson et al., 1975)와 유사한 요소들과 동일 곤란도로 형태 사고장애에 관한 두 가지 형의 Grid를 실시하였는데, 심리적

구성개념과 비심리적 구성개념을 사용하였다.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 측정에서만, TD 환자들이 심리적 구성개념화 영역에서 최대로 혼란되어 있다는 가설이 강하게 지지되었다. 곤란도가 통제되어어도 그랬다. 이 결과는 이전 연구(McPherson et al., 1975)를 지지하며, 형태 사고장애의 병리학에서 사회적 요인의 역할을 가정하는 이론들(Bannister, 1960, 1962)과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Heather, McPherson 및 Sprent(1978)도 Phillips(1977)의 집단×구성개념 상호작용이 특유성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구성개념 관계 강도는 그렇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Williams(1971)는 물리적 차원들과 관련되는 단서들은 성격 특성과 관련되는 단서들보다 인물사진에서 더 쉽게 언어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고찰은 왜 TD 환자들이 물리적 구성개념들로써 인물사진들을 등급서열로 매길 때 구성개념 관계 강도나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 면에서 정상인들과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Heather는 만약 피험자들에게 Grid Test에서 낮은 인물들의 사진보다도 피험자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들을 등급서열을 매기라고 하였다면, Williams에 의하여 가정된 물리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간의 단서 유용성에서 차이 효과는 더 작아야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McPherson, Armstrong 및 Heather(1978)의 연구에서 검증이 되었다. Harrison과 Philips(1979)는 Bannister와 Salmon의 결론은 타당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였는데, Grid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구성개념들의 관련 변인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관련 변인들의 효과를 조사하였으며, 또한 Rep Grid에서 순수 일관성 효과만을 주장하는 Frith와 Lillie(1972), 그리고 Haynes와 Phillips(1973)의 결과를 반복실험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정신분열증 형태 사고장애는 사물에 관한 사고에서보다 비교적 특유하게 인물

에 관한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매우 합리적인 시사는 기껏해야 과단순화하고 결론을 내렸다. 즉, 발견되어온 이러한 특유성 가설은 약하며 반복실험이 잘 되지 않으며 복잡하다고 하였다. 또한, 정신분열증 형태 사고장애를 진단하기 위하여 Rep Grid를 사용한다면 요소 일관성 점수가 구성개념 관계 강도나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 점수보다 변별이 더 잘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신체에 관련된 구성개념과 사물에 관련된 물리적 구성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 신체에 관련된 구성개념을 신체적 구성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신체적 구성개념은 인물을 판단할 때 사용되므로 사물을 구성개념화할 때 사용하는 물리적 구성개념과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dams-Webber(1980)는 TD 환자들이 물리적 구성개념을 사용할 때보다 심리적 구성개념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 더 큰 개념적 붕괴를 보인다는 사실에 대해 이 차이는 심리적 구성개념과 물리적 구성개념의 부적 극에서보다 정적 극에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 더 높은 수준의 개념구조를 보인다(Adams-Webber, 1977)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발달적인 견지에서,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사람들을 기술하는 데 점진적으로 더 많은 심리적 구성개념을 사용하며, 대부분의 구성개념을 부적 극의 견지에서 분화시킨다고 보았다. 더 어린 아동은 자신이나 타인을 특징지을 때 대부분의 구성개념들을 정적 극의 견지에서 더 분화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정상인들에서는 부적 극에 있는 심리적 구성개념들의 의미는 정적 극에 있는 구성개념들의 의미보다 더 분화되어 있다. 물리적 구성개념에서는 이와 반대이다(Adams-Webber, 1979). 개인이 심리적 구성개념의 부적 극에 할당한다는 의미는 좀 더 특유하고, 아마 좀 더 독특할 것이라는 것을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정적 및 부적 심리적 구성개념에서의 특유성 가설을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Chambers(1984)의 통합 복잡성(inte-

grative complexity)은 분화와 통합을 함께 측정하는 지수인데, 이 지수는 단편화된 구성개념화(fragmented construing)와 대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Chambers는 인물들에 대한 일반적인 유사성 견지에서의 순위 매기기에서 단편화된 구성개념화의 산만한 순위 매기기와 통합 복잡성의 고도로 정교한 순위 매기기를 구별해 주는 협응 Grid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학적 모의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완전히 단편화된 구성개념화에서부터 정상적인 구성개념화까지의 구성개념화의 연속체를 예증하였다. 따라서, 협응 Grid는 정신병리 연구에도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응 Grid에서 격자구조는 인물지각의 면에서 보아 피험자에게 광범위한 특성들을 통합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므로, 통합 복잡성 지수는 TD 환자의 구성개념 관계 강도와 비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분화와 통합을 함께 측정하기 때문이다. 이 통합 복잡성 지수는 피험자의 타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유사성” 지각에 관한 지수이기 때문에, 특유성 가설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어떤 구성개념이든지 한정된 편의성의 범위를 갖는다. 개인의 전체 구성개념 체계는 하위체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체계 내의 구성개념들간에는 강한 관계가 있으며, 상이한 하위체계의 구성개념들과는 비교적 약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신분열증 형태 사고장애에 관한 개인적 구성개념 이론 연구는 TD 환자의 전체 구성개념 체계에 장애가 있는지, 이 장애가 특유한 하위체계에 장애가 있는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정신분열증 형태 사고장애는 개인의 모든 구성개념 하위체계들에 확산적이거나, 아니면 특정 하위체계에 특유한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Bannister와 Salmon은 정신분열증 형태 사고장애는 모든 하위체계들에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물리적 구성개념화에 적용되는 하위체계들에서보다 심리적 구성개념화에 적용되는 하위체계에 더 뚜렷하다고 함으로써 대인 구성개념화 영역에서 TD환자의 이완 구성개념화

의 병인학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Bannister와 Salmon의 특유성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들은 Rep Grid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변인들과 구성개념 변인들이 서로 다르거나, 뒤섞여 있거나, 그 조합이 일부만 이거나 하여 실험들이 불일치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요소 변인들과 구성개념 변인들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실험들에서 특유성 가설을 검증하는 종속 측정치들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특유성 가설을 평가하는 충분한 증거를 내어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구성개념 관계 강도 점수에 대한 인지 복잡성 지수의 설명에 관해서는 인지 분화와 인지 통합을 측정하는 통합 복잡성의 견지에서 TD 환자의 대인 경험의 비타당화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과 요소 일관성은 TD 환자의 갈등으로 인한 비일관성의 견지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논리적 비일관성 지수는 이러한 설명을 확장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성개념의 정적 및 부적 극에 따른 특유성 가설 검증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요소들(실체인물, 인물사진, 사물)과 구성개념들(심리적 구성개념, 신체적 구성개념, 물리적 구성개념)의 조합이 Rep Grid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Rep Grid의 지수들을 통합 복잡성 지수와 논리적 비일관성 지수 해석으로 확장하며, TD 환자의 대인 경험 영역에서의 이완 구성개념화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Rep Grid들에서 심리적 및 신체적 구성개념들의 정적 및 부적 극에서의 이완 구성개념화를 검증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1. 심리적 구성개념으로 인물을 구성개념화할 때, TD 환자들은 NTD 환자들과 정상인들보다 구성개념 관계 강도,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 및 요소 일관성이 더 낮을 것이다.
2. 신체적 구성개념으로 인물을 구성개념화할 때, TD 환자들은 NTD 환자들과 정상인들보다 구

- 성개념 관계 강도,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 및 요소 일관성이 더 낮을 것이다.
3. 물리적 구성개념으로 사물을 구성개념화할 때, TD 환자들은 NTD 환자들 및 정상인들과 구성개념 관계 강도,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 및 요소 일관성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4. 모든 피험자들은 심리적 구성개념으로 인물(인물사진과 실제인물)을 구성개념화 할 때, 부적 심리적 구성개념에서보다 정적 심리적 구성개념에서 구성개념 관계 강도가 더 높을 것이며, 신체적 구성개념으로 인물(인물사진과 실제인물)을 구성개념화할 때는 정적 신체적 구성개념에서보다 부적 신체적 구성개념에서 구성개념 관계 강도가 더 높을 것이다.
5. TD 환자들은 NTD 환자들과 정상인들보다 통합적으로 덜 복잡할 것이다.

6. TD 환자들은 NTD 환자들과 정상인들보다 논리적으로 더 비일관적일 것이다.

방 법

피험자

피험자는 10명(남 6, 여 4)의 형태 사고장애 정신분열증 집단, 10명(남 5, 여 5)의 비형태 사고장애 정신분열증 환자 집단 및 10명(남 5, 여 5)의 정상집단이였다.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되었으며, 형태 사고장애 평정 척도로 형태 사고장애의 정도가 평정되었다. 형태 사고장애 평정 척도 결과는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진단된 TD 집단이 평균 14.6점이었고, NTD 집단이 평균 0점으로 두 임

표 1. 세 피험자 집단의 나이, 교육수준, 현 입원기간 및 발병 후 경과시간의 평균, 표준편차 및 범위

	형태 사고장애 정신분열증	비형태 사고장애 정신분열증	정 상
나이(년)			
평 균	26.00	24.00	29.10
표준편차	9.29	4.24	7.98
범 위	18-49	17-31	20-44
교육수준(년)			
평 균	10.80	11.50	12.80
표준편차	2.97	1.72	2.66
범 위	6-16	8-12	9-16
현 입원 기간(개월)			
평 균	4.1	4	
표준편차	2.64	2.58	
범 위	2-9	1-9	
발병 후 경과시간(개월)			
평 균	56.4	54	
표준편차	35.8	48.74	
범 위	12-120	12-180	

상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8.82$, $df=18$, $p<.01$. NTD 환자들은 평정 척도의 네 문항 중 어느 문항에서도 3점 이상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전체 절단점은 9점이었다. 정상 피험자들은 뇌손상이나 이전 정신과 입원 경력이나 외래 진료를 받은 경력이 없는 일반인들이었다. 표 1은 세 피험자 집단의 나이와 교육수준의 평균, 표준편차 및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집단들은 나이, 교육수준, 성에서의 유의한 차가 없었다.

도구 및 재료

Rep Grid : Bannister와 Fransella(1967)의 Grid Test of Schizophrenic Thought Disorder를 모형으로 하여 실험자가 만든 Rep Grid를 사용하였는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소 변인들과 구성개념 변인들의 가능한 조합에 따라 모두 다섯개의 Rep Grid를 만들었는데, 요소들의 수는 모든 Rep Grid에서 이렇고, 구성개념의 수는 여섯으로 일정하게 하였다. 기본적인 Rep Grid의 구성과 실시 및 채점은 아래의 제1 Rep Grid와 같다.

제 I Rep Grid(인물사진×심리적 구성개념) : Bannister-Fransella의 Grid Test of Schizophrenic Thought Disorder를 모형으로 하여 실험자가 만든 Rep Grid이다. 인물사진 8매는 5cm×7cm 크기의 명함판 사진으로, 성인 남자 사

진 4매와 성인 여자 사진 4매의 흑백사진이었다. 사진의 인물들은 모두 한국 사람으로 제작하였다. 심리적 구성개념은 모두 단극 구성개념인데 셋은 정적 구성개념이고, 셋은 부적 구성개념이다. 즉, 친절한, 우둔한, 이기적인, 성실한, 심술궂은, 징직한의 여섯 심리적 구성개념이다.

제 II Rep Grid(인물사진×신체적 구성개념) : 사진 8매는 제 I Rep Grid와 동일한 사진이다. 신체적 구성개념은 복스러운, 험상궂은, 허약해 보이는, 노숙한, 불품없는, 원기왕성한의 여섯 구성개념인데 세 구성개념은 정적이고, 세 구성개념은 부적이었다.

제 III Rep Grid(실제인물×심리적 구성개념) : 실제 인물 8명은 피험자의 가족, 잘 아는 주변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물 역할 목록”으로 이 인물들을 유도해 내었다. 실제인물 8명은 아버지, 어머니, 남자 형제, 여자 형제, 배우자 또는 이성친구, 동성친구, 선생님 또는 윗사람 및 싫은 사람이었다. 심리적 구성개념은 제 I Rep Grid와 같았다.

제 IV Rep Grid(실제인물×신체적 구성개념) : 실제인물 8명은 제 III Rep Grid와 같고, 신체적 구성개념은 제 II Rep Grid와 같았다.

제 V Rep Grid(사물×물리적 구성개념) : 여덟 종류의 사물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로서 우산, 물컵, 연필, 냉장고, 손수건, 지팡이, 손목 시계, 구두였다. 물리적 구성개념은 크다,

표 2. 요소 변인들과 구성개념 변인들의 조합에 의한 Rep Grid

요 소	구 성 개 념	
	심리적 구성개념	신체적·물리적 구성개념
인 물 사 진	제 I Rep Grid (인물사진×심리적 구성개념)	제 II Rep Grid (인물사진×신체적 구성개념)
실 제 인 물	제 III Rep Grid (실제인물×심리적 구성개념)	제 IV Rep Grid (실제인물×신체적 구성개념)
사 물	제 V Rep Grid (사물×물리적 구성개념)	

두껍다, 무겁다, 길다, 넓다, 곧다 의 여섯 구성 개념이었다.

협용 Grid : Chambers의 협용 Grid를 개작하여 사용하였다. 간략히 설명하면, 피험자가 잘 아는 주변인물들과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를 포함한 10명의 인물들에 대해 “일반적인 유사성”으로 보아서 한 인물들에 대하여 다른 인물들을 순위로 매기는 Grid이다. 이 인물들로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이성친구 혹은 배우자, 동성친구, 선생님 혹은 윗사람, 싫은 사람 및 이상적 자기이다. 행과 열에 이 인물들이 기입되어 10×10 행렬이 산출된다.

사고장애 평정척도 : 정서장애 환자와 정신분열증 환자를 위한 구조화된 면접 질문지인 SADS (Schedule for Affective Disorder and Schizophrenia)를 기초로 해서 만든 사고장애 평정척도 (Spitzer & Endicott, 1975에서 개작함)를 사용하였다.

절차

다섯개의 Rep Grid와 협용 Grid를 피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모든 Rep Grid의 실시 시회는 2시회였다. 각 Rep Grid의 요소들과 구성개념들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실시 절차는 제 I Rep Grid와 같다. 실제 인물 8명은 피험자로부터 유도해 내기 위하여 “인물 역할 목록”을 사용하였다. 실험자가 면접하는 형식으로 역할목록의 역할 이름을 유도해 내었다. 이 실제 인물들을 구성개념(심리적 구성개념 및 신체적 구성개념)으로 판단하게 할 때는 사진과 똑같은 5cm×7cm 크기의 두꺼운 종이 카드를 8장 만들고 그 위에 역할목록의 각 이름을 써 넣고, 실험자가 매번 무선적으로 뒤섞어서 사용하였다. 모든 피험자가 8장 썩의 새로운 카드를 준비하여 실시하였다.

8개의 사물의 이름도 위와 같이 5cm×7cm 크기의 두꺼운 종이 카드를 8장 만들고 그 위에 각 사물의 이름을 써넣고, 실험자가 매번 무선적으로

뒤섞어서 사용하였다. 모든 Rep Grid의 해당 구성개념은 응답지에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였다. 협용 Grid는 “역할목록 유사성 조사지”로써 피험자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인물들과 자기와 이상적 자기가 포함된 10명의 역할인물을 협용 Grid의 판단지에 있는 행과 열에 실험자가 동일 순서로 써넣었다. 협용 Grid도 면접형식으로 피험자들에게 개인별로 실시하였다. 협용 Grid 절차에서 피험자는 일련의 인물들을 다른 사람과 일반적인 유사성으로 보아서 차례대로 순위를 매기면 된다. 이러한 지시는 피험자가 “일반적인 유사성”이라고 불리는 포괄적인 추상개념을 발달시키며, 또한 Grid에서의 인물들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순위를 매김으로써 이 추상개념의 다양한 국면들을 정교화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Rep Grid와 협용 Grid는 신경정신과의 임상심리학자가 정신과 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실시하였고, 정상인들에게는 신경정신과에서 임상심리학기초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과 임상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 역시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피험자별 전체 Rep Grid 실시 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전체 실시 시간이 길어서 피로와 지루함을 감안하여 중간 휴식시간을 가지면서 실시하였다. 최종 자료 수집 전에 Grid를 모두 마치지 못한 피험자는 임상 표집에서 2명이었다.

측정치 및 분석방법

다음과 같은 종속 측정치를 Rep Grid에서 산출하였다.

구성개념 관계 강도. Rep Grid에서 가능한 모든 구성개념들간의 $\rho^2 \times 100$ 이다. 2회 실시했으므로 두개 Rep Grid의 강도의 합을 구하면 된다. 이 지수는 구성개념 관계 강도의 전반적인 측정치이다.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 두개의 상이한 Rep Grid나 동일 Rep Grid의 상이한 두번의 실시로

나오는 구성개념 관계의 동일 양식의 안정성 정도에 관한 측정치이다. 검사와 재검사에서 rho 행렬 간의 rho 상관이다.

요소 일관성. 반응들이 동일 Grid의 상이한 두 번의 실시에서 일어나는 정도의 측정치이다. 즉, 검사와 재검사에서 한 구성개념에 대한 요소들의 순위간 rho²×100이다.

형태 사고장애 평정 척도에서 그 정도가 측정되었다.

형태 사고장애 평정. 지리멸렬, 연상 이완, 비논리적 사고, 언어 내용의 빈곤에 관하여 그 정도를 0(정보 없음)에서 6(극단적인)까지 평정하는 것이다. 각 문항에서 3점 이상이면 사고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정된다.

협응 Grid에서 두 지수를 구하였다.

통합 복잡성. 협응 Grid를 그것의 전치로부터 빼고, 차이의 절대치를 합하여 유도한다. 합이 더 클수록 덜 협응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통합 복잡성이 더 낮은 것이다. 합이 작을수록 통합 복잡성이 더 높은 것을 나타내며, Grid에서 인물들 간의 관계 정교성이 더 협응되어 있는 것이다.

논리적 비일관성. 협응 Grid에서 구해지는 지수이다. 지수가 높을수록 논리적 비일관성을 나타내며, 지수가 낮을수록 논리적 일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지수는 순위 행렬의 각 행간 Spearman 상관을 구하고, 행의 상관들을 순위지

우고, 이들 상관 순위에서 원 순위를 빼서 산출한다. 각 Rep Grid의 구성개념 관계 강도,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 지수와 협응 Grid의 통합 복잡성, 논리적 비일관성 지수는 Chambers와 Grice (1986)의 CIRCUMGRID III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Rep Grid는 분할 소구회 요인설계의 변량분석으로 각 측정치를 계산하였는데, 피험자간 요인설계(각 피험자 집단)와 피험자내 요인설계(제공된 요소들과 유도된 요소들, 심리적, 신체적 및 물리적 구성개념)를 하였다. 가설검증에 요구되는 집단 비교는 관련 집단은 Scheffé 검증을 하였다.

결과 및 논의

표 3은 세 종류의 요소(인물사진, 실제인물 및 사물)와 세 종류의 구성개념(심리적 구성개념, 신체적 구성개념 및 물리적 구성개념)의 조합에 의한 다섯가지 유형의 Rep Grid에서 세 집단 피험자들의 종속 측정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다. 연구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Rep Grid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지를 먼저 알아보았다. 표 4는 집단(3)과 Rep Grid(5)에 의한 구성개념 관계 강도,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 요소 일관성 및 구성개념 관계 강도 변산도의 이원 변량 분석을 요약한 것이다.

표 3. 형태 사고장애 정신분열증 집단, 비형태 사고장애 정신분열증 집단 및 정상집단의 다섯가지 유형의 Rep Grid에서의 종속 측정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Rep Grid	집 단	형태 사고장애 정신분열증	비형태 사고장애 정신분열증	정 상
종속측정치				
	구성개념 관계 강도	576.20(123.69)	1114.60(489.01)	1114.70(443.99)
인물사진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	.3570(.2833)	.5170(.3656)	.5900(.2702)
×	요소 일관성	14.70(5.93)	44.10(18.03)	53.70(17.90)
심 리 적	구성개념 관계 강도 변산도	9.17(4.33)	11.76(.0545)	11.18(6.00)
구성개념	정적 구성개념 관계 강도	118.50(53.49)	312.70(127.06)	238.00(151.49)
	부적 구성개념 관계 강도	121.10(77.57)	221.30(119.96)	171.60(89.87)

Rep Grid	집 단	형태 사고장애 정신분열증	비형태 사고장애 정신분열증	정 상
종속측정치				
	구성개념 관계 강도	638.70(311.29)	1028.00(373.02)	924.80(154.37)
인물사진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	.2540(.1975)	.6740(.2017)	.7050(.2725)
×	요소 일관성	26.20(11.45)	54.10(14.72)	65.30(11.19)
신 체 적	구성개념 관계 강도 변산도	8.61(5.96)	10.24(2.52)	13.00(3.70)
구성개념	정적 구성개념 관계 강도	131.20(63.30)	194.60(88.83)	132.00(69.38)
	부적 구성개념 관계 강도	104.60(77.47)	203.90(99.72)	213.40(67.06)
	구성개념 관계 강도	688.30(323.83)	1289.70(463.12)	1490.00(511.22)
실제인물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	.4030(.2500)	.6910(.2429)	.7690(.1903)
×	요소 일관성	28.60(21.58)	53.90(15.18)	73.90(8.40)
심 리 적	구성개념 관계 강도 변산도	10.65(5.33)	10.81(4.35)	9.84(2.79)
구성개념	정적 구성개념 관계 강도	156.10(74.41)	345.20(93.98)	323.10(136.66)
	부적 구성개념 관계 강도	140.40(147.46)	295.30(155.00)	327.00(108.56)
	구성개념 관계 강도	650.80(157.54)	977.70(303.84)	980.50(457.17)
실제인물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	.2800(.2821)	.6880(.2550)	.7750(.1758)
×	요소 일관성	25.20(17.97)	60.10(20.67)	73.00(13.27)
신 체 적	구성개념 관계 강도 변산도	10.50(4.23)	14.43(5.11)	11.92(3.51)
구성개념	정적 구성개념 관계 강도	131.90(70.22)	202.70(118.97)	127.60(91.24)
	부적 구성개념 관계 강도	121.90(39.69)	196.20(120.01)	255.10(144.07)
사 물	구성개념 관계 강도	970.10(458.83)	1205.80(271.56)	994.40(308.01)
×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	.4020(.2756)	.4430(.2725)	.8060(.1536)
물 리 적	요소 일관성	47.80(29.94)	73.10(10.62)	82.30(11.68)
구성개념	구성개념 관계 강도 변산도	11.37(4.44)	14.39(5.29)	13.40(3.64)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개념 관계 강도에 대해서, 집단 변인의 주효과가 유효하였으며, $F(2, 27)=3.68$, $p < .05$, Rep Grid 변인의 주효과도 유의하였다, $F(4, 135)=21.47$, $p < .01$. 집단×Rep Grid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에 대해서는, 집단 변인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나, $F(2, 27)=30.73$, $p < .01$, Rep Grid의 주효과는 없었으며, 집단×Rep Grid의 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다.

요소 일관성에 대해서, 집단 변인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F(2, 27)=83.13$, $p < .01$, Rep Grid의 주효과도 유의하였다, $F(4, 135)=13.19$,

$p < .01$. 집단×Rep Grid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구성개념 관계 강도 변산도에 대해서는, 집단 변인의 주효과만이 유의하였다, $F(2, 27)=3.87$, $p < .05$. 그러나, Scheffé 검정 결과는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구성개념 관계 강도,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 및 요소 일관성에 대하여 집단(3)과 구성개념(3)에 따른 효과와 집단(3)과 요소(3)에 따른 효과를 세분하여 더 알아보았다.

표 5는 집단(3)과 구성개념(3)에 따른 구성개념 관계 강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

표 4. 집단(3)과 Rep Grid(5)에 따른 구성개념 관계 강도,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 요소 일관성 및 구성개념 관계 강도 변산도의 이원 변량분석 요약

		변산원	SS	df	MS	F
구성개념 관계 강도	집단(G)		5713472.38	2	2856736.19	3.68**
	Rep Grids(R)		1958461.69	4	489614.42	21.47**
	G×R		1793876.50	8	224234.56	1.69
강도	잔여 오차		17958978.30	135	133029.47	
	전체		27424788.80	149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	집단(G)		3.8814	2	1.9407	30.73**
	Rep Grids(R)		.2665	4	.0666	1.05
	G×R		.7583	8	.0948	1.50
일관성	잔여 오차		8.5260	135	.0632	
	전체		13.4321	149		
요소 일관성	집단(G)		44440.49	2	22220.25	83.13**
	Rep Grids(R)		14101.67	4	3525.42	13.19**
	G×R		848.17	8	106.02	.40
일관성	잔여 오차		36087.00	135	267.31	
	전체		95477.33	149		
구성개념 관계강도 변산도	집단(G)		1.78	2	.89	3.87*
	Rep Grids(R)		1.50	4	.37	1.63
	G×R		1.44	8	.18	.78
변산도	잔여 오차		31.11	135	.23	
	전체		35.83	149		

* $p < .05$, ** $p < .01$

며, 표 6에서는 이에 대한 변량분석을 요약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3)과 구성개념(3)에 따른 구성개념 관계 강도에 대해서, 집단 변인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F(2, 27) = 15.00$, $p < .01$, 구성개념 변인의 주효과도 유의하였다, $F(2, 27) = 3.93$, $p < .05$, 집단×구성개념의 상호작용도 유의하였다, $F(4, 81) = 2.95$, $p < .05$.

표 5의 심리적 구성개념에 따른 구성개념 관계 강도 점수의 일원 변량분석은 유의한 집단간 차이

를 보였으며, $F(2, 27) = 13.61$, $p < .01$, 신체적 구성개념에 따른 구성개념 관계 강도 점수의 일원 변량분석도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보였으나, $F(2, 27) = 8.66$, $p < .01$, 물리적 구성개념에 따른 구성개념 관계 강도 점수의 변량분석은 예측한대로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TD 환자들은 심리적 구성개념과 신체적 구성개념으로 인물을 구성개념화할 때는 NTD 환자와 정상인들보다 유의하게 더 낮은 구성개념 관계 강도를 보이며(Scheffé 검증), 물리적 구성개념으로 사물을 구성개념화할 때는 다른 두 집단과 구

형개념 관계 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집단×구성개념 상호작용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요소에 관계없이 심리적 구성개념과 신체적 구성개념을 사용한 Rep Grid에서는 TD 환자들이 NTD 환자와 정상인들보다 유의하게 더 낮은 구성개념 관계 강도 점수를 얻지만, 물리적 구성개념들을 사용한 Rep Grid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표 7은 집단(3)과 구성개념(3)에 따른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며, 표 8은 이에 대한 이원 변량분석을 요약한 것이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3)과 구성개념(3)에 따른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에 대해서 집단 변인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F(2, 27) = 23.57$, $p < .01$.

표 7은 심리적 구성개념에 따른 구성개념 관계

표 5. 집단(3)과 구성개념(3)에 따른 구성개념 관계 강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심리적 구성개념	신체적 구성개념	물리적 구성개념
형태 사고장애	632.25	644.70	968.30
정신분열증	(182.03)	(186.78)	(459.37)
비형태사고장애	1202.15	1002.85	1205.80
정신분열증	(391.44)	(218.68)	(271.56)
정상	1302.35	952.65	994.40
	(318.62)	(218.00)	(308.01)

표 6. 집단(3)과 구성개념(3)에 따른 구성개념 관계 강도의 이원 변량분석 요약

변산원	SS	df	MS	F
집단(groups)	2658748.88	2	1329374.44	15.00**
구성개념(constructs)	679843.19	2	339921.59	3.83*
C×G	1045458.25	4	261364.56	2.95*
잔여 오차	7179655.44	81	88637.72	
전체	11563705.80	89		

* $p < .05$, ** $p < .01$

표 7. 집단(3)과 구성개념(3)에 따른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심리적 구성개념	신체적 구성개념	물리적 구성개념
형태 사고장애	.3885	.2670	.4020
정신분열증	(.2432)	(.2251)	(.2756)
비형태사고장애	.6040	.6810	.4430
정신분열증	(.2633)	(.1490)	(.2725)
정상	.6795	.7400	.8060
	(.1264)	(.2147)	(.1536)

표 8. 집단(3)과 구성개념(3)에 따른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의 이원 변량분석 요약

변산원	SS	df	MS	F
집단 (groups)	2.2903	2	1.1452	23.57**
구성개념 (constructs)	2.2955	2	1.1478	.02
C×G	.4833	4	.1208	2.49
잔여 오차	3.9352	81	.0486	
전 체	6.7112	89		

** $p < .01$

일관성 점수의 일원 변량분석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2, 27) = 4.70, p < .05$, 신체적 구성개념에 따른 일원 변량분석도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F(2, 27) = 16.75, p < .01$. 물리적 구성개념에 따른 일원 변량분석도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보였으나, $F(2, 27) = 8.53, p < .01$, TD 집단과 NTD 집단에서만은 예측한 대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심리적 구성개념과 신체적 구성개념에 따른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의 집단간 차이는 예측한 대로였으나, 물리적 구성개념에 따른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의 집단간 차이는 부분적으로 가설이 지지되었다.

표 9는 집단(3)과 구성개념(3)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며, 표 10은 이에 대한 이원 변량분석을 요약하였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3)과 구성개념(3)에 따른 요소 일관성에 대해서 집단 변인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F(2, 27) = 56.13, p < .01$, 구성개념 변인의 주효과도 유의하였다, $F(2, 27) = 18.87, p < .01$.

표 9의 심리적 구성개념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의 일원 변량분석은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2, 27) = 39.64, p < .01$, 신체적 구성개념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의 일원 변량분석도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2, 27) = 34.60, p < .01$. 물리적 구성개념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의 일원 변량분석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2, 27) = 83.5, p < .01$.

그러나, 물리적 구성개념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의 집단간 Scheffé 검증에서는, NTD 환자들과 정상인들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표 10에서 보는 바와같이, 구성개념 변인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므로, 각 집단 내에서 구성개념(3)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에 대한 일원 변량분석을 하였다.

TD 집단에서, 구성개념(3)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에 대한 일원 변량분석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2, 27) = 4.93, p < .01$, 이에 대한 Scheffé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리적 구성개념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와 신체적 구성개념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심리적 구성개념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와 물리적 구성개념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F(2, 27) = 8.51, p < .05$, 신체적 구성개념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 27) = 6.08, p < .10$. 이것은 심리적 구성개념과 신체적 구성개념은 인물(인물사진과 실제인물 모두)을 구성개념화하기 때문에 대인 지각 영역이며, 이에 비해 물리적 구성개념은 사물을 구성개념화하기 때문에 사물 지각 영역이어서 대조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NTD 집단에서도, 구성개념(3)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에 대한 일원 변량분석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2, 27) = 9.71, p < .01$, 이에 대한

Scheffé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리적 구성개념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와 신체적 구성개념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심리적 구성개념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와 물리적 구성개념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F(2, 27) = 18.75$, $p < .01$, 신체적 구성개념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와 물리적 구성개념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 27) = 8.27$, $p < .05$.

정상 집단에서도, 구성개념(3)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F(2, 27) = 7.55$, $p < .01$, 이에 대한 Scheffé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리적 구성개념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와 신체적 구성개념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심리적 구성개념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

와 물리적 구성개념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F(2, 27) = 14.26$, $p < .01$, 또한 신체적 구성개념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와 물리적 구성개념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 사이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 27) = 7.21$, $p < .05$.

따라서, 표 9와 표 10에서의 결과는 TD 환자들은 물리적 구성개념으로 사물을 판단할 때 보다 특히 심리적 구성개념과 신체적 구성개념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 요소-구성개념 이원 구성개념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심리적 구성개념으로 인물(인물사진과 실제인물)을 구성개념화할 때, TD 환자들은 NTD 환자들과 정상인들보다 구성개념 관계 강도,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 및 요소 일관성이 더 낮을 것이라는 가설 1이 지지되었다. 또한, 신체적 구성개념으로 인물(인물사진과 실제인물)을 구

표 9. 집단(3)과 구성개념(3)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심리적 구성개념	신체적 구성개념	물리적 구성개념
형태 사고장애 정 신 분 열 증	21.65 (11.31)	25.70 (13.44)	47.80 (29.94)
비형태사고장애 정 신 분 열 증	49.00 (13.49)	57.10 (13.04)	73.10 (10.62)
정 상	63.80 (11.74)	69.15 (9.25)	82.30 (11.68)

표 10. 집단(3)과 구성개념(3)에 따른 요소 일관성의 이원 변량분석 요약

변산원	SS	df	MS	F
집단 (groups)	25320.02	2	12660.01	56.13**
구성개념 (constructs)	8510.42	2	4255.21	18.87**
C×G	272.42	4	68.10	.30
잔여 오차	18269.25	81	225.55	
전 체	52372.10	89		

** $p < .01$

성개념화할 때, TD 환자들은 NTD 환자와 정상인들보다 구성개념 관계 강도,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 및 요소 일관성이 더 낮을 것이라는 가설 2가 지지되었다.

가설 3은 물리적 구성개념으로 사물을 구성개념화할 때는, TD 환자들은 구성개념 관계 강도,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 및 요소 일관성에서 NTD 환자들과 차이가 없을 것이었는데, 구성개념 관계 강도에 대해서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에서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으며, 요소 일관성에서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그런데, 각 집단내에서 특히 TD 환자들의 요소 일관성이 물리적 구성개념에서 보다 심리적 구성개념과 신체적 구성개념에서 더 낮게 나온 결과는 가설 3이 요소 일관성에서도 지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써, 집단(3)과 요소(3)에 따른 구성개념 관계 강도의 변량분석에서 집단 변인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F(2, 27)=12.63, p<.01$, 이에 대한 인물 사진으로 판단된 구성개념 관계 강도 점수의 집단간 유의한 차이, $F(2, 27)=7.04, p<.01$, 실제인물로 판단된 구성개념 관계 강도 점수의 집단간 유의한 차이, $F(2, 27)=9.94, p<.01$, 그리고 사물로 판단된 구성개념 관계 강도 점수의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들 수 있다. 또 하나의 뒷받침되는 자료는, 집단(3)과 요소(3)에 따른 요소 일관성의 변량분석 결과이다. 즉, 이 자료에서 요소 변인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는데, $F(2, 27)=18.17, p<.01$, TD 집단내에서, 요소(3)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에 대한 일원 변량분석이 또한 유의하였다, $F(2, 27)=4.19, p<.05$. 이에 대한 Scheffé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물사진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와 실제인물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인물사진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와 사물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F(2, 27)=7.39, p<.05$, 실제인물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와 사

물에 따른 요소 일관성 점수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 27)=5.93, p<.10$. 이것은 인물사진과 실제인물은 모두 대인관계 영역으로서 사물 요소와 대조가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TD 환자들의 최대 손상 영역은 사물 지각이 아니라 인물지각에 있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표 11은 집단(3), 심리적 구성개념(2) 및 신체적 구성개념(2)에 따른 구성개념 관계 강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리적 구성개념에 따른 구성개념 관계 강도 점수에서는, 모든 집단이 정적 구성개념에 의한 관계 강도 점수가 부적 구성개념에 의한 관계 강도 점수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신체적 구성개념에 따른 구성개념 관계 강도 점수에서는, 거의 모든 집단이 부적 구성개념에 의한 관계 강도 점수가 정적 구성개념에 의한 관계 강도 점수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차이 검증 결과는 정상 집단에서만 신체적 구성개념에 따른 관계 강도 점수에서, 부적 구성개념에 따른 관계 강도 점수가 정적 구성개념에 따른 관계 강도 점수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t=-3.95, df=18, p<.01$. 따라서, 모든 피험자들은 심리적 구성개념으로 인물(인물사진 및 실제인물)을 구성개념화할 때는, 부적 심리적 구성개념에서보다 정적 심리적 구성개념에서 관계 강도가 더 높을 것이며, 신체적 구성개념으로 인물(인물사진 및 실제인물)을 구성개념화할 때는, 정적 신체적 구성개념에서보다 부적 신체적 구성개념에서 관계 강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 4는 정상 집단에서만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것은 심리적 구성개념과 신체적 구성개념들이 모두 인물 지각에서 사용되었고, 정적 구성개념과 부적 구성개념의 분화가 심리적 구성개념과 물리적 구성개념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구성개념에 대한 정적 및 부적 관계 정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더 연구가 필요하다.

표 11. 집단(3)과 심리적 구성개념(2) 및 신체적 구성개념(2)에 따른 구성개념 관계 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 단	심리적 구성개념		신체적 구성개념	
	정 적	부 적	정 적	부 적
형태 사고장애 정 신 분 열 증	137.30 (49.42)	130.80 (88.71)	131.55 (48.81)	113.25 (50.28)
비형태사고장애 정 신 분 열 증	328.95 (71.41)	258.30 (121.57)	198.65 (68.30)	200.05 (80.75)
정 상	280.55 (134.66)	249.30 (69.02)	129.80 (56.11)	234.25 (62.11)

표 12는 세 집단의 통합 복잡성 점수와 논리적 비일관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그에 대한 일원 변량분석을 요약하고 있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합 복잡성 점수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2, 27)=9.02$, $p<.01$. 집단간 Scheffé 검증 결과는, TD 집단이 NTD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F(2, 27)=15.32$, $p<.01$, 정상 집단 보다도 유의하게 더 높았다, $F(2, 27)=36.03$, $p<.01$. 통합 복잡성 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통합적으로 단순함을 의미한다. 즉, TD 집단은 다른 집단들보다 통합적으로 더 단순하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설 5가 지지되었다.

또한, 논리적 비일관성 점수에 대해서도,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2, 27)=18.57$, $p<.01$. 논리적 비일관성 점수에 대한 집단간 Scheffé 검증 결과는, TD 집단이 NTD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F(2, 27)=5.65$, $p<.10$, 정상 집단보다도 유의하게 더 높았다, $F(2, 27)=17.94$, $p<.01$. 논리적 비일관성 점수도 점수가 높을수록 논리적으로 비일관적이라는 의미이다. 즉, TD 집단은 다른 집단들보다 논리적 비일관성을 더 보인다는 결과이다. 따라서, 가설 6이 지지되었다.

표 12. 세 집단의 통합 복잡성 점수와 논리적 비일관성 점수의 평균(표준편차)과 일원 변량분석 요약

집 단	통합 복잡성	논리적 비일관성
형태 사고장애 정 신 분 열 증	250.80 (27.33)	162.80 (27.56)
비형태사고장애 정 신 분 열 증	228.80 (19.49)	119.70 (23.22)
정 상	211.60 (12.57)	96.70 (22.81)
유의도 검증	9.02	18.57
F	< .01	< .01
df	2, 27	2, 27

본 연구의 결과들은 정신분열증 형태 사고장애는 모든 구성개념 하위체계들에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사물 구성개념화에 적용되는 하위체계에서보다 인물 구성개념화에 적용되는 하위체계에서 더 뚜렷하다고 한 Bannister와 Salmon (1966)의 주장에 대해서 일치하고 있다. 또한, Bannister등의 연구와 형태 사고장애 특유성 가설에 대한 이전 연구들의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해주고 있다.

구성개념 관계 강도에 대한 결과는, TD 환자들이

은 심리적 구성개념과 신체적 구성개념으로 인물(인물사진 및 실제인물)을 판단할 때는, NTD 환자와 정상인들보다 더 이완 구성개념화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또한, 물리적 구성개념으로 사물을 판단할 때는 두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완 구성개념화의 영역이 대인 경험에서 특히 그러하며, 사물 지각 영역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TD 환자들이 심리적 구성개념과 신체적 구성개념으로 인물사진이든 실제인물이든 간에 사람을 판단할 때는 이완 구성개념화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Heather(1976)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는데, 그는 “TD 환자들은 NTD 환자들보다 요소에 관계없이 심리적 구성개념들을 사용한 Rep Grid들에서는 유의하게 더 낮은 점수를 얻을 것이지만, 물리적 구성개념들을 사용한 Rep Grid들에서는 유의하지 않을 것이다”(p.135)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Heather는 구성개념을 두 종류(심리적 구성개념과 물리적 구성개념)로만 구분하였는데, 그의 물리적 구성개념은 본 연구에서의 신체적 구성개념과 유사한 구성개념이었기 때문에, 그의 자료에서는 집단×구성개념의 상호작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Heather의 “요소에 관계없이”는 인물사진과 실제인물에 국한시켜 보아야 할 것이다.

Harrison과 Phillips(1979)는 특유성 가설은 과단순화된 합리화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물리적 구성개념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였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심리적 구성개념과 신체적 구성개념은 대인 판단에서 차이가 없었다. 더욱이, Bannister는 시행 때마다 요소들과 구성개념을 모두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 그는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만 산출하고, 구성개념 관계 강도를 산출하지 않았다. Heather는 구성개념 관계 강도만 구하고 일관성은 조사하지 않았다.

TD 환자들의 요소 일관성이 물리적 구성개념에서 보다 심리적 구성개념과 신체적 구성개념 모두에서 더 낮게 나온 결과는 심리적 구성개념과 신체적 구성개념은 인물을 구성개념화하기 때문에 대인 경험 영역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리적 구성개념은 사물을 구성개념화하는 사물 지각 영역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조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이 결과는 TD 환자들은 물리적 구성개념으로 사물을 판단할 때보다 특히 심리적 구성개념과 신체적 구성개념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 구성개념에 요소를 일관되게 배정하지 못하는 이완 구성개념화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TD 환자들의 요소-구성개념의 이완 구성개념화는 인물사진 요소와 실제 인물 요소에서 다른 집단보다 더 심하였으며, 사물 요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결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즉, TD 환자들의 최대 손상 영역은 사물 지각이 아니라 인물 지각에 있다.

요소 일관성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특히, 정신분열증 형태 사고장애의 병인학에서 사회적 타당화 결여를 가정하는 이전 연구 결과들(Bannister, 1960, 1962; Lidz, 1964)과도 일치하고 있다. 즉, 비일관적인 구성개념-요소 배정은 대인 경험에서 갈등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지지된 구성개념 관계 일관성과 논리적 비일관성은 이러한 설명에 더해지는 설명 지수일 수 있다. 왜냐하면 비일관성은 모두 대인경험에서의 갈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통합 복잡성은 TD 환자들이 다른 집단들보다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는 통합적으로 단순하며 일반적인 유사성의 견지에서 인물들을 잘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들은 논리적으로도 가장 비일관적인 것과 함께 주변 인물들에 대한 대인 지각에서 결함이 있음을 의미한다.

가설 4는 심리적 구성개념과 신체적 구성개념이 모두 인물 판단에서 사용되지만, 정적 및 부적 구성개념에 따른 미묘한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한 것이

었다. 가설이 완전히 지지되지는 않았지만, 심리적 구성개념에서의 정적 및 부적 방향과 신체적 구성개념에서의 정적 및 부적 방향이 다르다는 것은 더 검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검증은 형태 사고장애의 발달적인 측면에서 유용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TD 환자들이 Rep Grid에서 마구잡이로 반응하지 않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즉, 이완 구성개념화는 마구잡이 사고방식을 의미하지만, Rep Grid 실시에서는 마구잡이 반응이 아님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TD 환자들의 인지 장애는 특히 대인 경험영역의 이완 구성개념화로써 증명되었다. 그러나, 이 결과도 개념 구조의 붕괴에 대한 하나의 추론이라고 볼 수 있다. 개념 구조의 붕괴는 대인 갈등으로 인한 비일관성의 누적된 결과인지 아니면, 개념 구조가 이미 붕괴되었기 때문에 특히 갈등이 될 수 있는 대인관계 영역에서 특유하게 나타나는지는 여전히 숙고할 문제이다. 그러나, 개념 구조에 대한 보다 적절한 측정은 정신분열증 형태 사고장애 발생의 원인과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dams-Webber, J.(1977). The organization of judgements based on positive and negative adjective in the Bannister-Fransella Grid Tes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0, 173-176.
- Adams-Webber, J.(1979).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Concept and applications. *New York: John Wiley*.
- Adams-Webber, J.(1980). Differences between physical and psychological constructs in repertory grid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3, 319-322.
- Bannister, D.(1960). Conceptual structure in thought disordered schizophrenia. *Journal of Mental Science*, 106, 1230-1249.
- Bannister, D.(1962). Personal construct theory: A summary and experimental paradigm. *Acta Psychologica*, 20, 104-120.
- Bannister, D.(1963). The genesis of schizophrenic thought disorder: A serial invalidation hypothesi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09, 680-696.
- Bannister, D., & Fransella, F.(1967). Grid test of schizophrenic thought disorder manual. *Barnstaple: Psychological Test Publications*.
- Bannister, D., & Salmon, P.(1966). Schizophrenic thought disorder: Specific or diffuse?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39, 215-219.
- Bateson, G., Jackson, D., Haley, J., & Weakland, J.(1956). Towards a theory of schizophrenia, *Behavior Science*, 1, 251-264.
- Chambers, W.V.(1984). A nomothetic view of personal construct processes. *Psychological Reports*, 55, 554.
- Chambers, W.V., & Grice, J.W.(1986). Circumgrids: A repertory grid package for personal computer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and Computers*, 18, 5, 468.
- Frith, C.E., & Lillie, F.J.(1972). Why does the repertory grid indicate thought disorder?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1, 73-78.
- Harrison, A., & Phillips, J.P.N.(1979). The specificity of schizophrenic thought

- disorder.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105-117.
- Hayness, E.T., & Phillips, J.P.N. (1973). Schizophrenic thought disorder, loose construing, personal construct theory and scientific research.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2, 323-325.
- Heather, N. (1976). The specificity of schizophrenic thought disorder: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previous findings.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5, 131-137.
- Heather, B.B., McPherson, F.M., & Sprent, P. (1978). The analysis of interactions in experiments on the specificity of schizophrenic thought disorder: A reply to Phillips.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7, 379-389.
- Kelly, G.A. (1955).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 (2 vols.). *New York: Norton*.
- Laing, R.D., & Esterson, A. (1964). *Sanity, madness and the family*, vol. 1.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 Lidz, T. (1964). *The family and human adaption*. *London: Hogarth*.
- Livesay, J.R. (1981). Inconsistent interpersonal judgement in thought disordered schizophrenia. *Psychological Reports*, 49, 179-182.
- McPherson, F.M., Armstrong, J., & Heather, B.B. (1975). Psychological construing, "difficulty" and thought disorder.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48, 303-315.
- McPherson, F.M., Armstrong, J., & Heather, B.B. (1978). Psychological construing and thought disorder: Another test of the difficulty hypothesi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1, 319-324.
- McPherson, F.M., & Buckley, F. (1970). Thought-process disorder and personal construct subsystems.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 380-381.
- Phillips, J.P.N. (1977). On the incorrect investigation of interac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6, 249-252.
- Salmon, P., Bromley, J., & Presley, A.S. (1967). The word-in-context test as a measure of conceptualization in schizophrenics with and without thought disorder.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40, 253-256.
- Spitzer, R., & Endicott, J. (1975). *Schedule for Affective Disorders and Schizophrenia (SADS)*, 2nd Ed. *New York: Biometrics Research, New York State Psychiatric Institute*.
- Williams, E. (1971). The effect of varying the elements Bannister-Fransella Grid Test of Thought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19, 207-290.

The Specificity of Schizophrenics' Personal Construct System

Chong-Nak Son

Jeonbu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loose construing of formal thought-disordered (TD) schizophrenics' personal construct system and to clarify whether their loose construing does occur in a specific construct subsystems, i.e., especially in interpersonal experience areas. For the experimental instruments five different Rep Grids were used, which were consisted in the possible combination of elements (photographs of people, real people, and objects) and constructs (psychological, body-related physical, and object constructs). Split-plot factorial design was used to evaluate the subjects' construct subsystems. The results were that TD schizophrenics were less disordered relative to NTD schizophrenics and normals when using object constructs than when using psychological constructs and body-related physical constructs irrespective of whether photographs of strangers or known people are used as elements to be construed. That is, TD schizophrenics obtained significantly lower construct intensity and element consistency than NTD schizophrenics and normals on Rep Grid employing psychological constructs and body-related physical constructs but not on object constructs. The inconsistency was inferred as a genesis of the schizophrenic formal thought disorder for its possible relations of interpersonal conflict.